

기호 1

신경림 회장 후보



◇ 학 력

- 이화여대 간호대학
- 미국 컬럼비아대 문학 석사
- 미국 컬럼비아대 간호교육학 석사
- 미국 컬럼비아대 간호교육학 박사

◇ 경 력

-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현)
- 사단법인 통일간호포럼 대표(현)
- 제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
-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장 (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 대한간호협회 회장(제32대 및 제33대)
- 이화여대 대외협력처장
-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

◇ 포 상

- 보건의 날 '황조근정훈장'
- 국회 종합현정대상
-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 국회 사무처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
- 유권자시민행동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상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 국제시그마테타우(STTI) 간호사 연구자 명예의 전당
- 국제질적연구센터(IJQM) 국제지도자상

존경하는 대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회원 여러분!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신경림입니다.

지난 32대와 33대 대한간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학제의 4년 일원화를 실현하였고,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환자안전법 제정과 함께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의료법을 개정하여, 간호보조인력의 도전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크게 제고하는 패거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의료법 하위법령에는 지금도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총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에서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간호보조인력 명칭 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 인력 축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듯이 혁신을 중단하고 안주해 버리거나, 대한간호협회와 지부, 간호사 회원, 보건의료단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튼튼한 연대를 구축하는 데 소홀해지면, 간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다시 이 자리에 선 만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혁신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제37대 회장단 후보는 수많은 간호정책 과제와 협회의 혁신을 대의원님, 그리고 회원님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37대 회장단은 혼신을 다해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의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월희 제1부회장 후보



◇ 학력 - 서울대 간호대학, 연세대 교육학 석사

◇ 경력 -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강사(현), 대한간호협회 이사(현), 병원간호사회 회장,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부장

◇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영경 제2부회장 후보



◇ 학력 - 부산대 간호대학, 이화여대 이학 박사

◇ 경력 -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 및 대학원장(현), 대한간호협회 이사(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국가시험위원장(현), 부산시간호사회 회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사 및 감사

◇ 포상 - 한국간호과학회 우수논문상, 한국모자보건학회 우수논문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부산시장상

- 개정된 의료법에 수반되어야 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대로 준비함으로써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업무 체계가 작동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아울러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산시간호사회 회장 및 대한간호협회 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간호협회의 발전, 간호사의 지위 확립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질 높은 국민건강 관리와 동시에 간호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상심으로 협조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키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무술년을 맞이하여 대한간호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일선 간호사로, 최고 간호관리자로, 십만명이 넘는 회원들을 대표하는 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서 병원 현장의 38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2년간 대한간호협회 홍보위원장으로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 및 협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 변화와 의료계의 변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전문직의 단결된 힘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계의 중점과제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회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대한간호협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면서 계속)

미국의 경우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Nurse Residency Program)'을 운영해 이직 감소, 지속근무 증가, 직무만족도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신규간호사의 병원적응을 돕기 위해 약 1년간 1:1 멘토를 지원하고, 발전단계별로 임상실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비용 대비 성과를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신규간호사에게 임상훈련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훈련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규간호사 병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사례 및 향후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한 황순연 전 동아대병원 간호부장은 "신규간호사들이 졸업한 대학이 다양하고, 개인의 차이도 커서 병원현장에서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다양한 병원에서 실습을 못해본 신규간호사들은 현실쇼크를 겪게 되고, 특히 실습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밤근무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간호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병원환경과 간호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 병원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만이 아니라 병동의 모든 간호사와 특히 수간호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간호수기기술을 실제 병동환경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후 USB에 담아 신규간호사들에게 나눠줘 호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황순연 전 간호부장은 "간호대학에서부터 간호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간호의 근본철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이사(한양대 간호학부장)가

기호1번
신경림·곽월희·김영경

간호혁신과 열정으로,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의 도약!

I 대국민 간호정책의 위상을 제고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구태와 기득권들의 난립으로 초고령 사회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정책연대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1 거버넌스(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국민 간호정책의 위상 제고
- 2 보건의료면허전문분야,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간호법 제정
- 3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대

II 간호사가 활기차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겠습니다!

간호사가 활기차고 행복하게 간호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간호현장의 근로시간이 정상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임원료 등의 수가가 간호인력 중심으로 보상되도록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제 간호조직 문화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혁신하고, 간호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1 병동간호관리체계 혁신으로 간호사 1일 8시간 근로 준수
- 2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 중심으로 임원료 수가 전면 개편
- 3 간호사의 자긍심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간호체계 및 경쟁력 제고

III 협회 1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간호 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

1903년 최초로 보구여관에서 간호교육이 시작되었고, 1923년 대한간호협회가 출범하여 10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간호협회 70년사를 이어받아 대한간호협회 100년사에 대한 편찬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간호사 회관은 반백년동안 우리 간호활동의 거점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100년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간호사 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 1 보건의료 대표조직의 위상에 부합하는 간호사 회관 건립
- 2 투명하고 안정된 재정관리를 위한 대한간호협회 경영 혁신
- 3 새로운 간호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로서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편찬

IV 지부 중심으로 조직 혁신, 산하단체 중심으로 정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1 지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협회 조직 운영 체계 혁신
- 2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간호정책 혁신
- 3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간호현장 중심으로의 보수교육 체계 혁신

..... 물이 고이면 썩게 되듯이 혁신을 중단하고 안주해 버리거나, 대한간호협회와 지부, 간호사 회원, 보건의료단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튼튼한 연대를 구축하는데 소홀해지면, 간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후보 출마의 변 중에서 -

▲ 신경림 회장 후보 선거공약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했다.

박현정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는 "신규간호사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태움, 소진,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규간호사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셉터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합당한 지원체계가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자영 서울성모병원 간호교육 유닛매니저는 "신규간호사들은 낯설고 불확실한 상황, 복잡한 과중한 업무, 대인관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충격을 겪는다"면서 "간호대학생 때 최대한 임상현장과 동일한 세팅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셉터를 위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잘 돼 있어야 신규간호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형 서울성애병원 교육수간호사는 "신규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근무환경과 처우, 태움과 같은 조직문화를 개선해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숙 충남대 간호대학 교수는 "신규간호사들의 현장적응 능력을 높여려면 학과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병원에 투입된 후 기대되는 역할수행 간의 갭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습현장에 학생교육을 전담하는 임상실습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이론수업과 실기를 연결하는 접목과정으로 시뮬레이션 실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복 메디칼타임즈 기자는 "간호대학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간호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면서 "프리셉터들이 교육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속 정책간담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간호사 인력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주제로 지난해 12월 5일, 두 번째 프로그램은 '병원 내 간호사 배치 및 업무체계 개선' 주제로 1월 3일 열렸다.